



성 마리아병원 研修記

남 신 우

〈성모병원 자재계장〉

평소 외국의 병원을 견학하고 싶었던 나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가톨릭병원협회의 추천으로 일본의 성 마리아병원에서 1개월간 연수를 받게 된 것이다. 외국여행이 처음이어서 느끼는 호기심과 연수를 잘 받아야겠다는 심적 부담을 갖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병원 도착후 빠르게 그곳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그들의 친절함과 치밀하게 계획된 연수일정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의료법인 「雪의 聖母會」에서 운영하는 성 마리아병원은 福岡縣의 久留米市에 위치하고 있으며,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에서도 유수한 사립병원이다. 1,420 bed의 병상과 직원수는 1,100명 정도의 큰 병원이다. 또한 법인의 형태는 다르지만 九州産業衛生協會와 성 마리아 단기대학을 함께 운영하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헌하고 있는 종합의료센터이다. 성 마리아병원의 특징은 특수구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기능이 매우 활성화 되었다는 점이다. 응급센터, 순환기·산부인과 구급의료센터, 신생아·소아 구급의료센터, 재활의학센터 등이 대표적이며 병동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또한 국제보건센터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훌륭한 건진장비가 눈에 띄었으며, 건진자를 위한 병실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자재관리 및 의료장비관리를 위하여 경리부와 임상공학실에서 근무하였으며 병원당국의 배려로 1주일간 병원의 전 부서를 견학할 수가 있었다.

경리부에서는 경리와 자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9명의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임상공학실은 전문기사 8명이 근무하며, 각 분야별로 의료장비를 관리하고 있었다(예 ; 생명유지기, X선 RI기기, 검사기기 등). 또한 수술시에는 반드시 임상공학실 기사가 의료진과 같이 참여하여 의료장비를 작동시키고 있었다.

관리분야에서의 두드러진 현상은 병원에서의 Hotel Service 기능의 업무는 주로 외주위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침구세탁, 청소, 전화교환, 주차장 관리, 식기담기, 공조씨스템, 경비, 에레베이터 보수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외주위탁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들의 병원관리는 어느 분야에서나 비능률을 제거하면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사무자동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는 연수를 받으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첫째는 모든 직원이 자기직분에 충실하고 있는 자세이다. 근무시간 만큼은 철저히 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본받을 만 하였다. 우리가 느끼는 적당히란 말은 통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둘째는 환자와 방문자에게 대하는 친절함이다.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환자와 보호자를 가족처럼 대하면서 항상 성의껏 보살피고 설명하여 주었다. 또한 병원 어디에서나 환자중심의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친절교육을 강조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

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는 준법정신과 높은 질서의식이다. 교통법규와 공중도덕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이나 길거리에서 휴지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사람을 본 기억이 없다.

돌이켜보면 나는 1개월 간의 연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일본과 우리나라 병원운영의 실태에 관하여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또한 일본의 의료제도 전반에 관하여 공부할 수 있는 뜻깊은 연수였다.

나는 앞으로 이번의 연수를 통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맡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연수기간중 잊지 못할 추억이 많다. 같은 연수생인 파키스탄의 간호사, 잠비아

의 약사와 같이 생활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던 일, 우리의 의료원장 신부님께서 방문하시어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여 주신일 등 헤아릴 수가 없다.

또한 외국인 전용 숙소인 Marian House에서 우리 일행과 보낸 즐거움이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막상 1개월이 다되어 떠나온다 생각하니 시원함과 섭섭함이 교차하였다. 나에게 연수기간중 친절하게 가르쳐 준 경리부직원, 각 부서책임자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을 느껴야 했다. 연수기간을 보람있게 마칠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여 주신 성 마리아병원 당국에 감사드릴 뿐이다. 끝으로 이와같은 좋은 연수기회를 베풀어 주신 의료원장님, 의무원장님, 사무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연수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일본 성 마리아병원 임상검사실